

2野, 김대중 전 대통령 7주기 추모행사 ‘온도차’

국민의당, 세미나·강연 등 지도부 대거 참여 ‘DJ적통’ 잇기 더민주, 의원 개개인별 참석... 국민의당 주도에는 심기 불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하루 앞두고 추모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DJ 서거 7주기 추모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지난 4·13 총선 당시 양당은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 ‘DJ적통’을 주장하며 팽팽한 선거전을 펼

쳤다. 국민의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행사를 주도하며 거 당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실상 ‘DJ적통’을 잇는 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지도부가 아닌 의원들 개개인들이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등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발전세미나’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주선 국회부의장, 주승용·최경환·황주홍 의원이 참석했다. 반면, 더민주에선 김한정·유은혜 의원만 참석했다. 세미나 주최자는 더민주 소속 최석 고양시장이었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다수였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최경환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강연회-북해 23년의 교훈과 김대중의 해법’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주최자인 최 의원을 비롯한 권은희·김광수·김성식·박선숙·박주선·박지원·신용현·안철수·오세정·장병완·장정숙·정동영·조배숙·최도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민주에선 김한정·박병석 의원만이 참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양당의 공식 회의에서도 온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비대위에서 “내일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이다. 지난 15일 박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업적과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미래를 떠올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불신하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애민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더민주 비대위에선 김 전 대통령에 관한 발언이 없었다. 이같은 차이는 총선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8석을 독식하는 등 호남지역 28석 중 23석을 차지했다. 반면 더민주는 3석만을 획득했다. 이로써 호남을 장악한 국민의당이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이에 더민주에선 굵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민주 당내에선 “이벤트를 만들어서 마치 그분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정말로 마음속으로 추모하고 현재의 정치 문제와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도 천년 기념일 지정을”

광주전남연구원, 심포지엄서 정체성 확립 등 3대목표 설정

전라도 명칭이 생긴 지가 오는 2018년 10월 18일자로 천 년이 된다. 전라도 지명은 고려 현종 9년인 1018년에 전라북도 일원인 강남도(江南道)와 전라남도 일원의 해양도(海陽道)가 합쳐져 탄생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오는 18일 열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주제발표문에서 “역사 재조명을 통한 전라도의 정체성 확립, 화합과 상생의 기념사업 추진, 전라도의 새로운 미래 창출을 기념사업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13개 공동과제와 세부 사업을 발굴했다”며 전라도 천년 기념일(2018년 10월 18일)을 지정하자고 밝혔다.

그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지정 ▲엠블럼 및 기념품 개발 ▲기념공원 및 상징조형물 조성 ▲국제교류 증진 등 전라도 천년 기념일과 관련한 5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세부 사업으로 ▲전라도 아카데미 개설 ▲기념주회와 기념우표 발행 ▲음식, 천년 고찰, 누정 등의 문화관광자원화 ▲생태·문화의 강 문화회랑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발전세미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박주선 국회부의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DJ 사람들’ 갈라진 야권서도 소통 채널 활발

더민주·국민의당에 고무 포진 내년 대선 野통합 주도 관측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를 맞아 정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DJ의 사람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과 야당 생활을 같이하고 청와대 등 국민의 정부에서 근무했으며 ‘DJ 정신’을 정치적 모토로 하고 있다.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리면서 ‘DJ의 사람들’의 정치적 동지도 양당으로 분화됐지만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의 채널은 원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DJ 사람들이 양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DJ 유지가 분열보다는 통합이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 및 후보단일화 과정을 주도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동교동계 ‘노장’ 상당수는 4·13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갔다.

김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원톱’으로 정치력을 과시하고 있다. 동교동계 막내급인 김동철 의원과 DJ의 마지막 비서관인 최경환 의원과 국민의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 의원 등도 국민의당에 포진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사실상 햇볕정책과 평화경제에 기반한 것도 호남과

DJ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이 17일 정책위원회 주최로 ‘북해 23년의 교훈과 김대중의 해법’이라는 주제의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자리에는 박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DJ가 영입했던 정동영 의원도 국민의당 소속으로 남북관계 검색과 사드 배치 문제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민주에도 ‘DJ의 사람들’이 여전히 대거 포진돼 있다.

DJ의 비서관을 지낸 김한정 의원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훈·기동민 의원 등이 지난 4·13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DJ가 ‘새피’로 수혈한 대표적인 인물인 추미애 의원은 8·27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동교동계 ‘막내’로 불리는 설훈 의원과 동교동계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석현 의원도 더민주에서 다선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DJ의 3남인 홍길씨도 더민주의 울타리 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DJ 사람들’은 추모 관련 행사도 함께 기획하는 등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김한정·이훈·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후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리는 추모 토론회 ‘김대중 정신,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행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성과급 나눠먹다 딱 걸린 여수광양항만공사

감사원 ‘항만공사 감사’서 적발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주요 항만공사의 성과급을 나눠 먹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19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4년 7월~201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6300여만원의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해 받아갔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동쪽 철도운송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항만시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81명도 지난 20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 차이가 크게 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등의 이

유로 성과급을 재분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사무국장은 구두나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성과급 재분배에 참여할 직원들을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성과급 6억8700여만원을 받은 뒤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을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이 같은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 40억9000여만원을 취합한 뒤 3억1000여만원을 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재분배했다.

감사원은 이들 항만공사를 상대로 성과급 제도의 운용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고, 기획재정부에는 성과급 나눠 먹기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삼바에디션 타고 승리의리듬을 타라!

쌍용자동차 삼바에디션 탄생

스타일을 살려줄 삼바 스페셜 데칼

리미티드 에디션 원로고 엠블럼

눈부시게 빛나는 골드컬러 휠 라이너

KORANDO C 엔비 스페셜 데칼, 엔비 캐리어, 원로고 엠블럼, 스포츠 용제이머, 골드컬러 휠 라이너, 스티어링 휠, 휠캡, 후방 주차 센서, LED 주간 LED 조명, LED 브레이크 조명

KORANDO SPORTS 엔비 스페셜 데칼, 엔비 캐리어, 원로고 엠블럼, 스티어링 휠, 스포츠 용제이머, 골드컬러 휠 라이너, 스티어링 휠, 휠캡

TIVOLI 엔비 스페셜 데칼, 엔비 캐리어, 원로고 엠블럼, 스티어링 휠, 스포츠 용제이머, 골드컬러 휠 라이너, 스티어링 휠, 휠캡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 바랍니다.

광주점 : 광주중앙 5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산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빛고을 655-4001	동광주 515-1900	광주양산 573-8900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683-1800	목포하당 295-7576	화순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영암 473-3456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장성 395-0007	담양 383-5811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보성 852-2892	광양 761-8900	동광양 791-0071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진도 542-5888
여수구룡 642-1400	함평 324-3800					

구입문의